****

"假想的 軍 裁判"

"성 대령"에게 전방의 340부대가 적군에 의하여 전멸이 되였다는 "급전"이 날아든 것은 새벽 동이 트기 전의 일이다. "성 대령"의 동기생인 "강 대령"이 대대장으로 있던 부대였기에 "급전"은 상당한 충격이었다.

이로 인하여 군 수뇌부는 "지휘 책임"를 묻고자, 군법 재판을 개회한 것은 불과 3-4시간 후의 일이다.

재판정에 들어선 "강대령"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해 보였다.

"성 대령"은 그런 동기를 보면서 자기가 만약 340부대장이었다면 지금 저 자리에 서게 되였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동정심이 생겼다.

애국가가 울리고, 선서가 있은 후 군 재판장인 "예중장"은 준엄한 목소리로 "강 대령"를 내려다보면서 부대를 끝까지 사수하지 못한 직무와 부하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진지를 빼았긴 일에 대한 추궁으로 재판은 시작을 하였다. 이로서, 군 수뇌부의 재판 송사에 대한 논고를 필하고,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 있는 "강대령"의 변호인인 "성 대령"의 변론이 있었다.

"성 대령"은 "강 대령"의 현 처지를 재판관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절박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적에게 왜?, 진지를 빼앗기고, 부하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밝혀 내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왜냐하면 최소한 "강 대령"은 이제껏 자기를 위하여 출세의 줄을 잡으려고 한 일이 전혀 없는 순수 야전 지휘관이요, 강직한 성품과 직분에 대한 책임감, 의리를 결코 소홀히 할 군인이 아님을 그는 30년지기로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대령": (변호인석에 서서 "강 대령"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한다)
"왜 귀관은 오늘의 결과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그 연유를 귀관은 솔직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귀관은 지휘관으로서, 국가와 부대, 부하들을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지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으셨지요?"

비공개로 열린 재판석에는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성 대령"의 포호같은 질책에 순간 정적이 몰아침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강 대령"의 입이 열리기만 모두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마치 몇 십 년이나 되는 긴 시간으로 느껴만 졌다.

이윽고 "강 대령"은 말문을 열고,

"강대령": "적에게 사면으로 포위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이들로부터 부대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불철주야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적절한 방안을 세웠습니다만 그러던 중 적군이 야간에 침공을 감행하여 저희 부대는 큰 전투를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맞 붙었습

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군에게는 “실탄”이 부족하였습니다. 무전병에게 본부로 “실탄”을 지원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만, 응답이 없었고, 옆의 부대에게도 “실탄”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모두가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백병전으로 최후까지 싸웠으나, 실탄의 지원 없이는 진지를 사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놈의 “실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강 대령”은 법정이 떠나도록 흐느꼈다.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목이 메어 이야기는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감정은 격하였다)

군 재판부는 “강 대령”의 변론을 들으면서, 당시의 정황을 보고 받아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해당 부대들의 장교들을 소환하여 당시의 상황을 듣기로 하고 변호인 “성 대령”에게 통지하고 재판을 다음 날에 속개하였다.

“예재판장”:오늘 340부대의 전멸을 듣고 그 지휘관을 심판하고자 재판을 속개합니다. 증인들은 증인석에서 선서를 한대로 증언하시고, 법관과 변호인은 질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 대령”: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당시 지원을 요청 받은 부대장들을 소환하여 “강 대령”의 요청이 정당하였는지, 잘못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인들은 정직하게 대답을 바랍니다.

“정 대령”:저는 본부 무기 지원 담당 장교입니다. 당시 “강대령”이 실탄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부에서는 340부대만 특별히 지원해줄 입장은 아닙니다. 그보다 어려운 부대가 많았고, 특히 신참장교들이 전방에 다수 있어서 340부대의 지원 요청을 들었으나, 거기까지는 저희들의 손이 미치지 못 하였습니다. 더구나, 해외에 파병한 부대들의 지원을 우선 정책으로 하는 부대의 입장에서는 예하부대인 340부대까지는 지원을 요청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지원해야 할 의무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이러한 패전 소식을 들었고 재판정에서 “강대령”을 보니 바로 제가 잘못한 것임을 알겠으며, 진지의 손실과 패전의 책임은 수뇌부의 작전 전략과 정책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이대령”:저는 옆 부대의 대대장으로서 당시 340부대의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는 좋은 지휘관이기는 하지만 저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학교나 전선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서 특

별히 도와주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나와 관련된 다른 부대들을 돌아보아야 하기에 요청을 받았으나 돕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딱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저와 같은 학교, 맴버나 전선에서 동거동락을 한 사이였다면 목숨을 걸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대령" : 저는 "강대령"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강직하여 평소에 자신의 직무만 알 뿐, 다른 지휘관의 입장이나, 부대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주관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또 여러 어려운 일이 있었으나 그는 그때마다 일을 잘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도움을 요청 받았으나 그가 이번에도 잘 하리라고 믿었기에.., 하여튼 미안하게 되였습니다.

"정하사" : 저는 패전한 340부대의 하사관으로서 평소에 "강대령"의 지휘방침을 존경해 왔습니다.
연대장께서는 저희 부대를 창설하시고, 이 날까지 한 부대에서만 몸 담으셨습니다. 그의 봉급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자신의 몸을 살피지 않고 부대를 위하여 모든지 털어 주셨습니다. 그나마 부대가 비록 패전하였으나 이 정도까지 백병전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대대장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부대를 사랑하는 철저한 군인정신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타부대의 지원과 실탄의 공급이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저희 부대는 결코 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부대는 편안할 때, 저희 부대는 늘 대대장의 명령을 따라 헌신적으로 약한 예하 부대를 격려하고 다음의 지휘관을 양성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 부대를 적극 후원하는 타부대의 장교들과 하사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대가 별로 번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몇 협력을 제외하고는 부대의 우량화를 위하여 지원이 없었습니다.
대대장은 이러한 어려움을 끝까지 참으시고 오늘의 백병전에서 비록 패하시고 이렇게 재판정에 죄인으로서 서시게 되였습니만 대대장께서는 열악한 부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전투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저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 이제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전투 참전에 있어서 지휘방침과 작전 수행에 대한 잘못은 없었는지를 들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강대령"은 이번 전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직히 보고하시고 재판정의 판결에 순복하시오.

"강대령": 저는 패전 장교입니다. 무어라 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원래부터 약한 부대여서 기초를 다듬어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전속을 거부하고 한 부대에서만 외 골수로 있다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강직하게 되었고, 또 다른 부대장들의 이임의 소식과 전속의 현장을 보면서 무언가 해놓고 난 후에야 다른 부대로 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강력한 실적 정책과 또 막상 일을 이루지도 못하고 정든 부대를 떠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허락지 않아서 기회가 되였을 때 주저하다가 그냥 자리를 틀고 보니 이제는 저를 아는 야전 사령관이나, 본부의 인물이 줄어들고 자연히 잊혀진 존재로 살다보니 이렇게 큰 전투를 맞이하여 저희 부대는 역부족이였습니다.

저희 부대가 우량부대로 성장하고자 몇 번이고 동 사단과 타 부대, 타 사단에 타전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생각" 해보자는 답장만 왔으며, 본부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고 다만 일부 타부대의 하사관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그나마 340부대가 지탱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공급 경로가 되였던 것입니다.
야전부대가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부대의 우량화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량화 방법는 서로의 간격을 초월하여 같은 예하 부대라는 인식으로서 예하 부대 하나의 전멸이 본부의 전멸이라는 위기 의식을 함께 가져야만 합니다.

(잠시, 눈물을 딱으면서)

그러나, 저희 같은 야전 지휘관에게는 정치적이 제스처도 없고, 순수한 공격형 전략가로서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생각도 해보지를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중앙에 뇌물을 보내거나, 인사의 줄을 대보려고 하지 않았고, 옆 부대의 상사에게 필요이상의 웃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 심정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자부심과 교만한 마음이 없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부대 창설 10년 만에 큰 패배를 맛보아야 한 저로서는 有口無言이며, 패전자입니다.
저로 인하여 부대가 참패를 하였고 부하들과 진지를 상실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 조금 더 열심으로 성의를 가지고 직무에 충성하였더라면 이러한 전투에서 최소한 진지만이라도 지킬 수 있었으리라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게 어떠한 형벌을 내리더라도 저는 순복을 하겠습니다.
저를 따르다가 순직한 부하들과 그간 도움을 나눈 하사관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재판장":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부대를 처음 창설할 때에는 서로가 다른 부대라 하여도 유기적 관계를 가지라고 한 것인데 처음의 부대 창설 정신은 어디로 가고 이리도 개 부대의 형태로 전락하였습니다.
정치군인들은 전투 없는 곳에서, 또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편안히 그들의 작전과 기개를 펼치고 있지만, 순수 야전관인 "강대령"을 위시한 그들에게는 잘해도 "빛"이 없고 못하면 "죄인의 옷"을 입고 여론의 재판과 명예의 욕을 들어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귀한 지휘관을 문책을 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과연 누가 "강대령"을 재판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자!, 판결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강 대령"의 소망은 무엇이요?,

"강 대령": 제게 다시 한번 야전군 지휘가 허락된다면 340부대의 재창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야전부대는 중앙부대에 비하여 환경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대민 관계에서 특별한 지원과 다른 부대들의 공동대응이 없이는 스스로가 서지를 못합니다. 일부의 하사관들의 도움이나, 본부의 일시적인 협조로서는 하나의 진지를 구축하기는 부족한 것이 야전부대들의 실상입니다.
해외 파견부대의 지원도 절실한 입장이지만 국내 전방 부대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제게 다시 한번 340부대의 창설과 지휘권을 맡겨주시고 부대가 전투에서 이길 전력을 갖추기까지 본부에서나, 예하 부대에서 초월적인 전력 보강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 잘 알겠소!. 자 이제 판결을 내리려 하겠습니다. 더 말씀을 하실 분이 계십니까?,
검사 측, 마 대령은 할 말씀이 없으시오?.

"마 대령":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다시 지휘권과 부대의 창설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자기만 아는 독선가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는 실패자입니다. 그에게는 기회를 주지 말고 협조를 즉각 막고 구속하여야 합니다. 이는 검사인 저를 비롯하여 다수의 지휘관들의 분명한 결의 사항입니다.

"재판장":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판결을 내리고자 합니다. 모두 엄숙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340부대의 패전은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진지가 손실되었습니

다만, 사정을 듣고 보니 이는 내부의 안일함과 닫혀진 마음과 비 협력에 의해서 전방부대가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법정은 "강대령"에게는 1년 근신과 부대의 재창설을 명하고, 각 부대장들은 그의 직무를 초월적으로 도울 것을 명령합니다.

"성대령": 존경하는 재판장!, 진심으로 관대한 판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의 지도부에서 "마 대령"같은 분들이 계시는 한 우리의 교란을 계속될 것입니다.
이후로도 재판부에서 군 수뇌부를 통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부대의 재건설을 위하여 초월적으로 협력을 바라고, 본부에서 저를 특별히 감독관으로 파송을 바랍니다.

"예중장": 좋은 의견이요, 이후로 340부대는 "강대령"의 지휘와 "성대령"의 지도를 받아 진지를 다시 구축하고 적군으로부터 사수를 하시요, 이로서 본 법정은 판결을 마칩니다.

"땅, 땅, 땅"

강대령 : 시골 교회(미자립 교회) 목사
하사관: 도시의 큰 교회 집사
성대령: 성령
예중장: 예수님
마대령: 마귀
박대령: 같은 교단 목사, 강 대령 반대자
이대령: 타 교단 목사
정대령: 같은 교단 총회본부 목사, 반대자